

브라질 카니발 사상 첫 트랜스젠더 '여왕' 탄생

브라질 카니발에서 사상 첫 트랜스젠더 여왕이 탄생했다. 여왕은 카니발에 참가한 삼바스쿨의 퍼레이드를 이끄는 선두 역할을 한다. 팀을 리드하는 주장인 셈이다.



트랜스젠더 카말라 프린스(40·사진)는 지난 22일 개막한 상파울로 카니발에서 삼바스쿨 콜로라두 두 브라스의 '여왕'으로 출연했다. 상파울로 카니발에서 참가팀의 퍼레이드는 약 65분간 계속된다. 여왕은 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격렬한 춤을 추며 퍼레이드를 이끌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가장 주목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프린스는 "수많은 미인들이 이 자리를 원했다."면서 "(트랜스젠더로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프린스는 11살 때 처음으로 상파울로 카니발에 출전했다. 당시 그는 남자였지만 여장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어린이였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이다. 그는 이미 이때부터 자신의 성적정체성에 대해 남모름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민 끝에 여자로서 제2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된 그는 카니발을 앞두고 여왕 자리에 도전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가 속한 삼바스쿨 콜로라두 두 브라스는 프린스를 여왕으로 선택했다. 카니발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지 언론은 "콜로라두 두 브라가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왕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두 두 브라스의 관계자는 "다른 삼바스쿨에 비해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의상이나 차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트랜스젠더를 여왕으로 뽑은 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전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브라질 성소수자협회는 프린스가 여왕으로 선출된 데 축하메시지를 내고 "앞으로 브라질 카니발에서 성소수자들의 참가와 역할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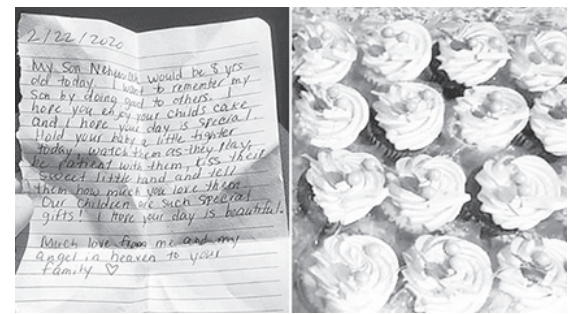
생일 케이크가 전하는 감동

텍사스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홀리 그리멧은 얼마 전 딸을 위해 미리 주문한 생일케이크를 찾으러 빵집에 들렀다. 기빠할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산을 하려는데 빵집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 지난 22일 ABC뉴스가 전한 사연은 이렇다.

이날 아침, 그리멧은 8번째 생일을 맞이한 딸 에바의 케이크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상황과 마주쳤다. 누군가 케이크 값을 미리 치렀다는 거였다. 빵집 주인은 그가 남기고 간 편지 한통을 내밀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늘 제 아들 느헤미아가 8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서 아들을 기리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맛있게 케이크 나눠 드시면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만큼은 자녀를 꼭 껴안아 주시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눈에 담으시고, 아이들의 작고 귀여운 손에 뽀뽀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시간 보내세요. 천국에 있는 나의 천사와 함께 당신 가족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생일케이크를 대신 계산하고 홀연히 떠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멧의 딸과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어머니였다. 그리멧은 "편지를 받



고 아가처럼 영영 울었다" 라면서 "자식에게 생일 축하 인사조차 건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해 떠올려 봤다."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엄마로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며 "이번 딸의 생일파티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뜻밖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녀는 아들을 안아줄 수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딸을 안아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멧은 다시 빵집을 찾아가 생일을 맞은 또 다른 아이를 위해 케이크를 대신 계산하고 돌아왔다. 그녀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피난길 나선 콜롬비아 농민들 사연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콜롬비아 농민들이 피난길에 나섰다.

최근 콜롬비아 북서부 안티오키아주의 이투안고에서는 최소한 309가구, 주민 820명이 도심으로 피난했다. 시는 피난민들을 위해 부랴부랴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했지만 피난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이투안고에서 주민들이 무더기로 피난길에 오른 건 올해 들어 이번이 벌써 11번째이다. 모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경고에 이어 벌어진 일이었다. 마우리시오 미라 시장은 "마약 재배와 관련해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카르텔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티오키아에선 '골포클란'이라는 무장 마약카르텔과 한때 콜롬비아를 내전으로 몰아넣은 '콜롬비아 무

장혁명군(FARC)'의 잔존 세력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마약범죄에 최적이라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안티오키아를 장악하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티오키아는 카리브와 태평양으로 연결돼 있어 콜롬비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마약을 밀매하는 데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다. 불법으로 마약을 재배하는 면적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안티오키아는 콜롬비아의 5대 불법 마약생산지 중 하나이다. 불법 마약재배 면적은 최소한 1만3402헥타르에 이른다. 중무장한 각 지역의 마약카르텔은 국립자연공원까지 침투, 마약을 재배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으로 마약이 재배되고 있는 면적 중 최소한 5%가 국립자연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